



인재정보기획관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국가인재**를 찾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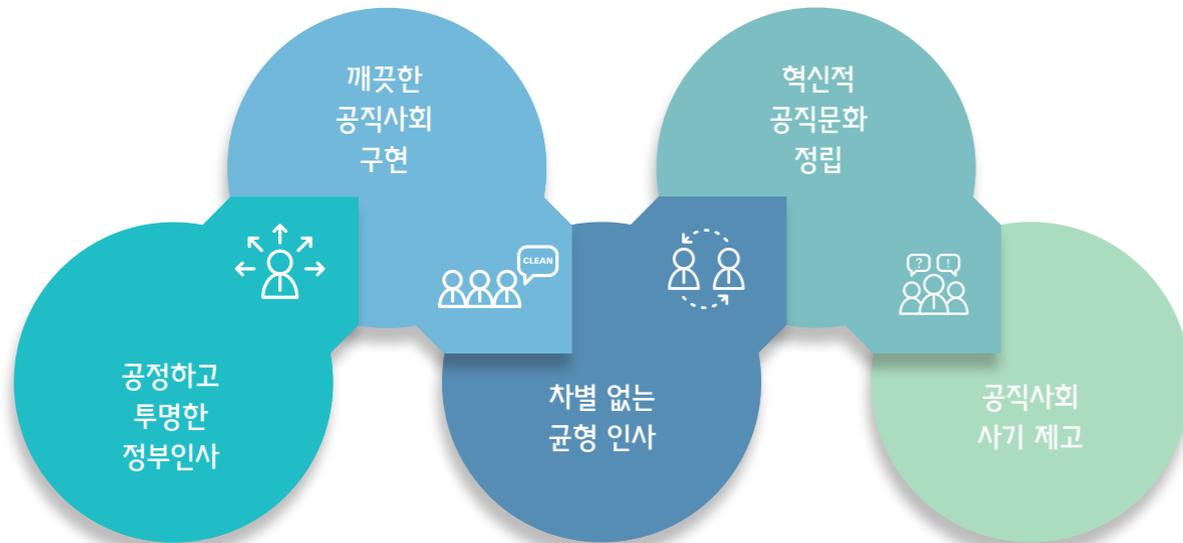
Talent
Information &
Acquisition
Bureau

1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중앙인사관장기관으로서
적재적소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해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인사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정부인사

- 5대 비리 관련 고위직 임용기준 강화 및 인사청문제도 개선 ·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세부 인사검증 기준, 인사청문제도 개선방안 마련
- 위법 부당한 인사에 대한 방지시스템 구축 인사고충 전담부서 신설 등 고충심사제도 활성화
- 인사추천 투명성 제고 국민추천제 활성화, 통합 · 균형적인 후보자 Pool 구성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 공직자 재산의 투명성 제고 및 엄격한 심사 고위공직자 특정재산 형성과정 신고 의무화, 재산형성과정 소명 근거 강화
- 퇴직공직자 전관예우 방지 및 민간유착 근절 추진 퇴직공직자 접촉제한, 신고자 보호 등 행위제한 강화
-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 투명성 강화 각급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 연차보고서 내실화 등 윤리위 운영 개선



차별 없는 균형 인사

- 공직 내 비공무원에 대한 차별 해소 비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제도 추진 인사관리분야(보수, 수당, 교육훈련, 휴가 등) 차별해소 방안 마련
- 범정부 균형인사 체계 구축, 점검 · 지원 여성 · 이공계 관리자 임용 확대 장애인 · 지역인재 채용 확대 및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사업 확대



혁신적 공직문화 정립

- 외부 전문가의 공직유입 지속 확대 및 성과창출 여건개선 개방형 직위 외부 전문가 임용 확대로 공직 개방 지속 추진 민간임용자 임기연장 및 우수성과자 재임용 확대
- 전문직공무원제도 성과분석 및 단계적 확산 '17년 전문직공무원 도입 및 시범실시(국제통상, 대기환경, 재난관리 분야 등) 전문분야 추가 발굴, 적용대상 직급 단계적 확대
- 교육훈련체계 강화를 통한 공직자 역량 제고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 강화 등 인재 개발 혁신 세종청사 공무원 대상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 등 인재개발 환경 개선
- 공무원 선발시스템 개선 시험 소요기간 단축 등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



공직사회 사기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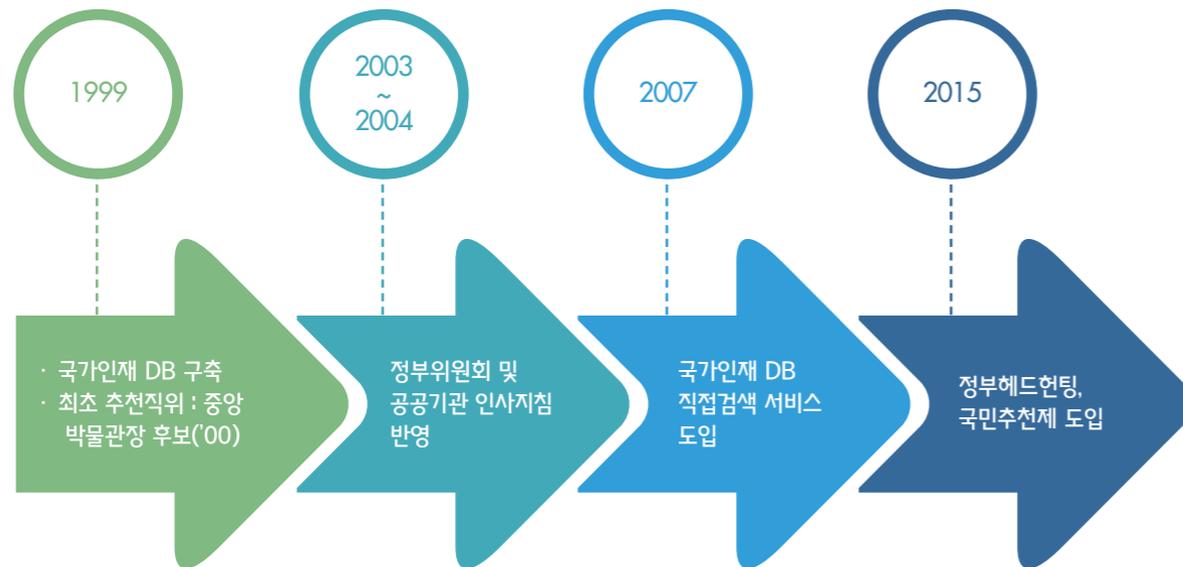
- 근로시간 단축, 근로방식 개선으로 근무효율 제고 초과근무 총량관리 강화 등 단계적 초과근무 감축 하계휴가 2주까지 확대, 동계휴가주간 신설 등 연가 사용 활성화
- 휴일 제도 개선 휴식권 보장을 위한 대체공휴일 확대
- 일 · 가족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인상, 육아시간 확대 및 남성공무원의 출산휴가 확대 등



2

인재정보기획관실

인재정보기획관실은 국가 핵심인재의 정보를 파악·관리하여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공직후보자를 추천합니다.
 공정하고 개방적인 정부인사를 통한 혁신!
 그 중심에 인재정보기획관실이 있습니다.



-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
 - 대한민국 정부의 주요직위 인선 시 우수인재를 임용할 수 있도록 사회 각 분야 전문가 약 29만여명('17년 기준)의 인물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 각급기관 인사지원**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인사혁신처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거나, 직접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열람하여 인물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 헤드헌팅**
 - 공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우수인재를 사전에 발굴·관리하고 적정직위에 초빙하는 맞춤형 인재발굴 서비스입니다.
- 국민추천제**
 -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공직후보자를 추천하는 국민참여형 선진인사시스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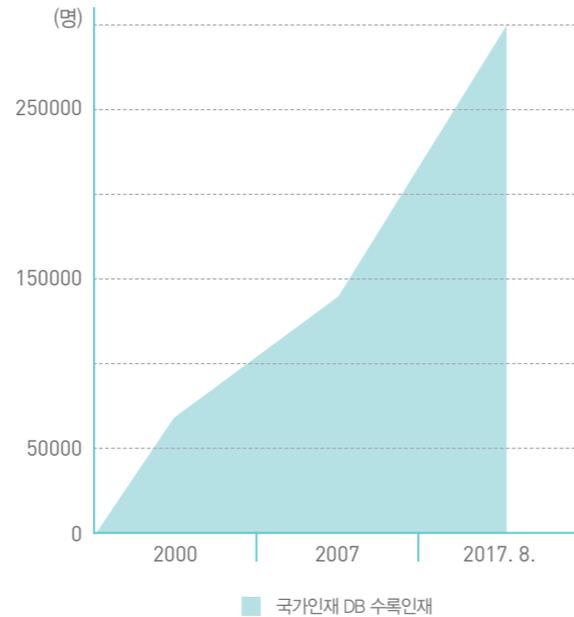
3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www.hrdb.go.kr)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주요직위 인선 시 우수인재를 임용할 수 있도록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국가인물정보관리시스템입니다. 1999년 구축하여 현재 학계, 재계, 법조계, NGO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 29만 여명('17년 기준)의 인물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수록기준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제2조

-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
- 각종 정부위원회의 위원
- 대학의 조교수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
- 상장법인 임원 및 유망 중소기업의 경영인
- 변호사·의사·공인회계사 등 전문 자격증 소지자 중 DB에 수록될 필요성이 있는 자
- 5급 이상 국가공무원 및 4급 이상 지방공무원(여성은 5급 이상)
- 주요 법인·협회·단체 등의 임원급 이상
- 문화·예술·체육 등 전문분야 관련 훈·포장 수여자, 국가대표선수로서 국내외 경기대회 수상자 등
- 기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인재DB 활용

- 정부 인선 시 인사혁신처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거나 직접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열람하여 우수인재의 인물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활용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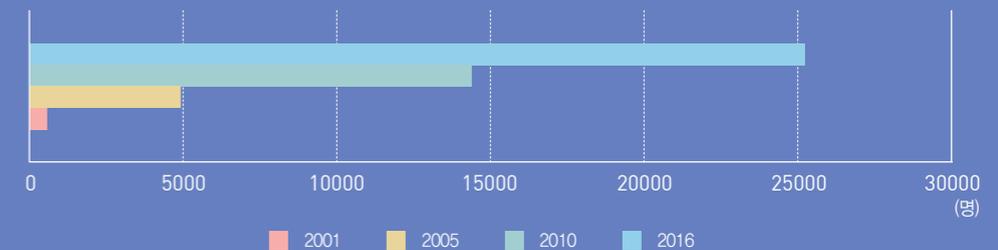
- 활용직위 |
- 정무직(선거직 제외)
 - 개방형 및 공모직위
 - 책임운영기관장
 - 공공기관장 및 임원
 - 정부위원회 위원
 - 각급기관 시험위원
 - 각종 선발심사위원회 및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활용절차



- 국가인재 DB 활용신청**: 인물정보가 필요한 날부터 10일전 국가인재 DB 활용신청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요청합니다.
- 요건심사**: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여 직접검색 신청자에게 국가인재 DB 접속 권한을 부여합니다.
- 후보자 선정**: 직접검색 신청기관은 10일 동안 국가인재 DB 열람이 가능하고, 인재추천 신청기관은 후보자 정보를 공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 활용결과 통보**: 임용일 또는 위촉일로부터 10일 이내 활용결과통보서를 공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함
- 사후 관리**: 제출해주신 활용결과 통보서는 국가인재 POOL 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가인재 DB에 저장·관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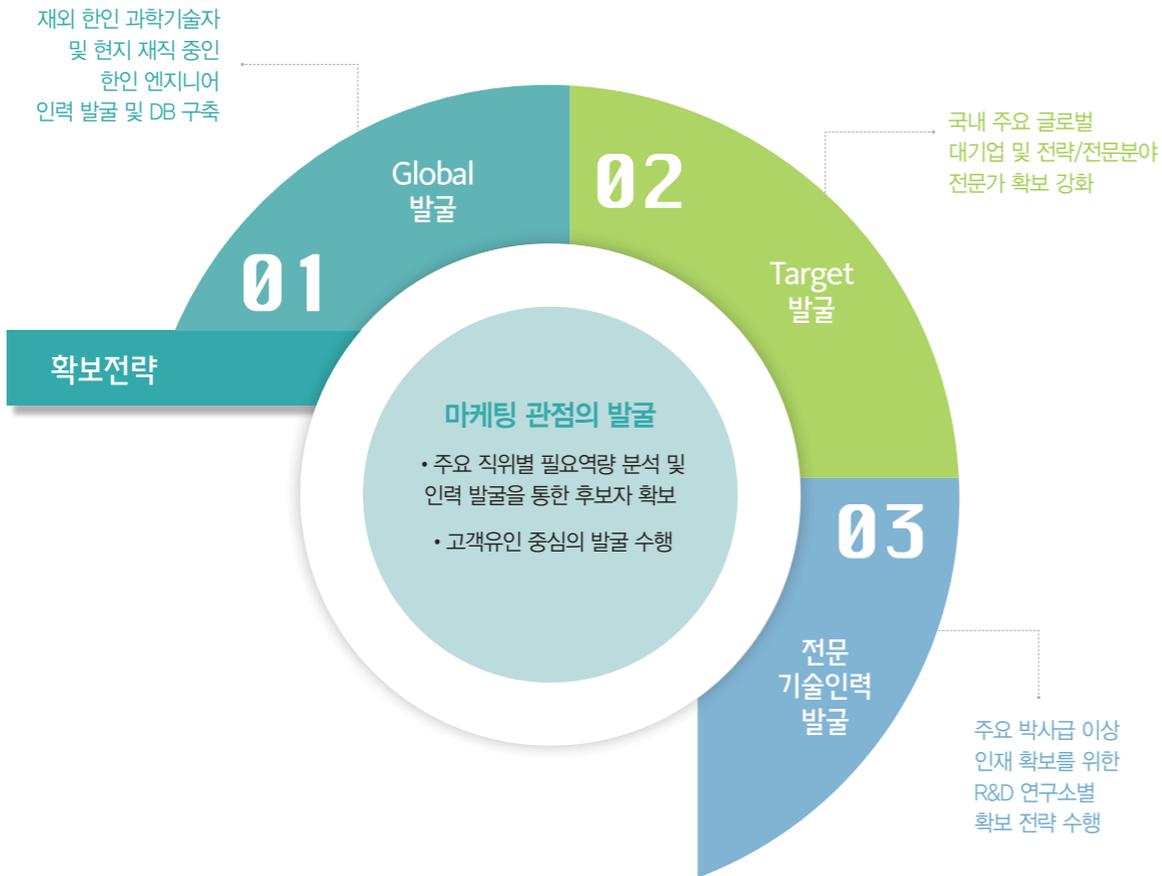
국가인재DB 활용현황 (추천인원)



4

정부헤드헌팅

경력개방형 직위 도입 등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하여 정부의 성과창출에 즉시 기여할 수 있는 민간 우수인재를 확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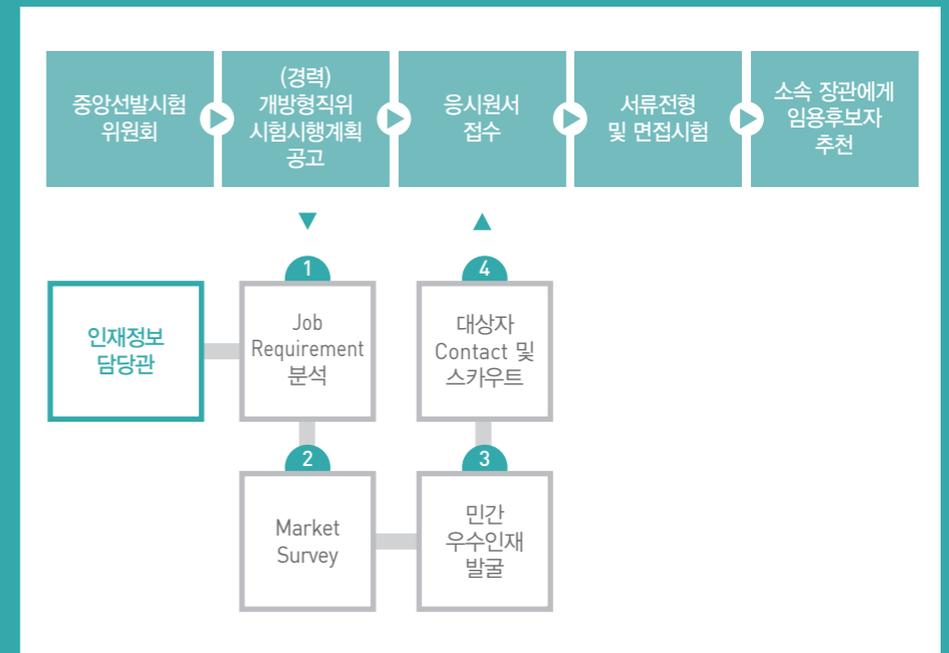


정부헤드헌팅이란 공직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 기관의 요청에 따라 민간우수인재를 직접 발굴·추천하는 맞춤형 인재발굴 서비스입니다.

정부헤드헌팅 대상직위

- **개방형직위**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
- **경력개방형직위**
개방형 직위 중 특히 공직 외부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어 공직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직위

정부헤드헌팅 절차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시험계획 공고, 원서 접수, 선발 및 후보자 추천

인재정보담당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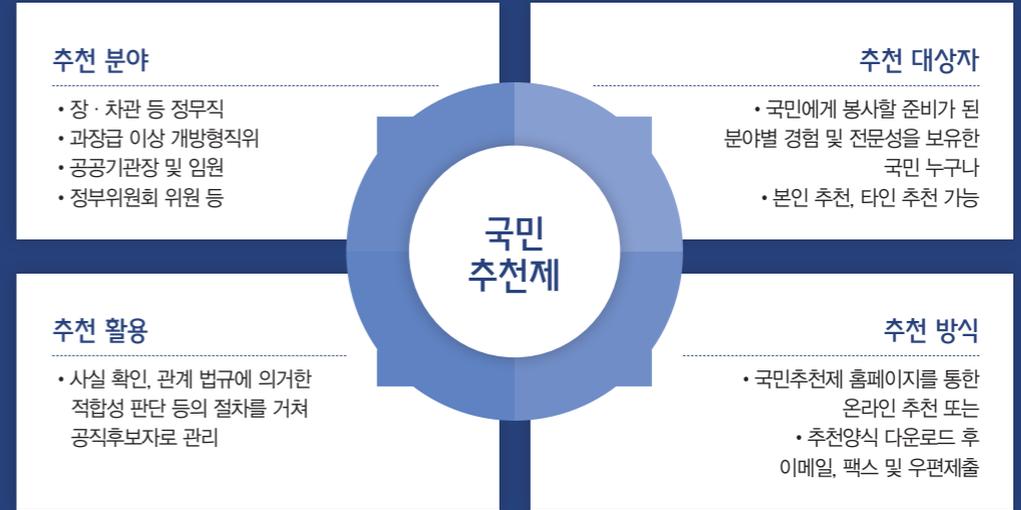
- ① 직무명세서 및 주요 업무계획 등을 분석하여 직위별 필요역량 도출
- ② 분야별 시장실사 등을 통해 직위/직종별 적정 자격, 경력, 직급, 지역 등을 감안한 발굴 타깃 확정
- ③ 재계, 학계, 전문가그룹 등을 대상으로 적격자 발굴
- ④ 직위 설명 및 지원의사 확인, 미등록자 대상 국가인재DB 등록, 공고 응시 안내

5

국민추천제

국민추천제는 참신한 인재발굴을 목적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공직후보자를 추천하는 국민참여형 선진인사시스템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분야별 전문가 또는 스스로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추천한 인재가 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국민추천제



추천분야 안내

- 정무직**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차관 및 처장·청장, 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위로서 각계 최고수준의 전문성, 정무적 감각 및 리더십 역량이 요구됩니다.
- 개방형직위**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대하여 공직 내·외부에서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적격자를 선발, 임용하는 직위입니다.
- 공공기관장 및 임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이사·감사 등의 직위입니다.
- 정부위원회 위원**
대통령,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행정기관위원회

임용현황 ('17. 8. 현재)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용노동부 국세청 방위사업청 조달청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이오생약심사부장, 식품영양안전국장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의정부지청장 학자금상환과장 정보화기획담당관 조달품질원장 통상정책심의관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국립공주병원장, 국립정신건강센터장 도시재생과장 대구우편집중국장 비상임감사 비상임이사 |
|---|---|

한국의 잡스 찾아낸다... 29만명 등재된 '인재도서관' '대한민국 두뇌 용광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모든 것

미국 텍사스주 크기만한 행성이 시속 약 3만 5000km 속도로 지구로 돌진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안 미국 정부가 인류 파멸을 막고자 행성에 약 250m 깊이의 구멍을 뚫고 핵탄두를 폭발시켜 쪼개는 방법을 고안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계 최고 유정 굴착 전문가인 해리 스텐퍼(브루스 윌리스 분)를 찾아가 "우주왕복선을 타고 소행성 중앙으로 가 핵폭탄을 설치하고 돌아오라"는 작전을 부탁한다. 언뜻 보서는 형편없어 보이는 '괴짜' 해리와 그의 동료들은 고민 끝에 제안을 받아들이고 지구를 구하기 위한 여정에 나선다. '아마겟돈'(1998년작)에서 보듯 정부가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에서 어렵사리 해당 분야의 달인을 찾아내 "국가를 위해 일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할리우드 영화의 오래된 공식이다. 이는 미국 정부가 장기간에 걸쳐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목록을 확보해 꾸준히 관리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인재풀이 우리나라에도 있을까. 일반인에게는 낯설지만 우리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바로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www.hrdp.go.kr)다. '대한민국 두뇌 용광로'라고 불리는 국가인재DB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약하는 공무원과 우수 인재들의 경력과 능력에 대한 정보를 모아 놓은 도서관이라 할 수 있다. 올해 5월 기준 중앙부처 5급 이상, 지방자치단체 4급 이상 공무원 5만 930명과 국민 추천 및 자기 추천을 통해 등록된 민간인 24만 7301명 등 모두 29만 8231명이 등록돼 있다...

2017. 9. 2, 서울신문 류지영 기자



병리학 연구의 권위자이던 의대교수, 공직자로 변신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심사부에는 특별한 이력의 공직자가 있다. 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과 영국 퀸즈메리대병원 교환교수를 거쳐, 동아대병원 병리과장으로 재직해 온 의과학자인 김대철 부장이다. 20년간 병리학을 연구했던 그는 세포유전자 치료 및 유전자재조합 의약품 연구·검증에 실적을 거둔 권위자이다. 이처럼 의사이자 학자로서 탄탄대로를 걷던 그는 지난 2015년 새로운 영역에 발을 디뎠다. 공직자의 길에 서서 대한민국의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다짐한 것이다. "20년 넘게 의사 및 연구자로서 한 길을 걸어오며, 앞으로의 10년은 또 어떤 길을 가야할까 고민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제 분야에 대해 학문적으로 성장하고, 미래 성장동력이 될 바이오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산업의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함께 하기로 결심했지요." 지난 2015년 11월, 그는 이러한 결심을 바탕으로 '국민추천제 1호 공무원'이란 타이틀을 달고 식약처 바이오생약심사부장에 임용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심사부에서는 바이오약품(백신, 항체의약품, 유전자 치료제 등)과 한약(생약), 화장품 및 의약외품의 허가심사 업무를 맡고 있다. 그 외에도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개발 및 신약개발을 위한 상담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이처럼 바이오생약심사부의 심사가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물론 국민의 건강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은 매우 중요하다...

2017. 7. 25, 국무조정실 규제정보포털



정부헤드헌팅 '15년 1건 >>>> '17년 8월 23건

이동규 연구부장 "일흔에 나라의 부름 받았다... 봉사하는 데 직급 왜 따지나"

이동규 국립기상과학원 수치모델연구부장(71)은 28년간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를 지낸 기상수치모델 연구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다. 그가 지난해 11월 기상청 산하 국립기상과학원 수치모델연구부장(2급)으로 임용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학계와 기상업계는 경악했다. 기상청장을 하고 남을 '기상학계의 거두(巨頭)'였기 때문이다. 직급상 상관인 기상청 본청 국장이나 지방기상청장 자리에도 그의 제자가 적지 않게 포진하고 있다. 일흔 나이에 공직사회에 첫발을 들이려는 그를 주변에서는 대부분 말렸다. 하지만 이 부장은 직급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국가에서 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나라에 봉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왔다"며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지난 11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기상청에서 만난 이 부장은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건강한 모습이었다. 그는 기상청뿐 아니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틀어 최고령 공무원이다. "젊은 직원들과 어울려 일하다 보니 젊어진 것 같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2010년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직에서 정년퇴직했다. 퇴직 후에도 한·미 기상과학센터 이사과 세계기상기구(WMO) 연구위원을 지내면서 관련 분야 연구에 매진했다.

정부 부처 인재 영입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처 인재정보과 관계자가 찾아온 것은 지난해 여름이었다...

2016. 8. 12, 한국경제 강경민 기자



국민추천제 '15년 1건 >>>> '17년 8월 15건

'정신건강의학계 대부' 이철 국립정신건강센터장 "정신질환 조기 치료로 사회적 낭비 줄여야"

정신질환 치료를 꺼리는 인식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치료를 늦게 시작하면 의료비용도 많이 듭니다. 이런 사회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내 정신건강의학계 대부로 꼽히는 이철 국립정신건강센터장(사진)은 "정신건강 관련 공익사업 등을 하고 있는 센터를 4~5년 내 진료, 연구, 사업 등을 모두 망라하는 국내 최고 기관으로 바꿔가겠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개척정신을 서울아산병원과 울산대 등에 전파한 의사다. 1989년 서울아산병원 개원 멤버로 교육부원장을 지내며 교육 시스템의 기반을 닦았다. 이후 울산대병원으로 자리를 옮겨 병원장, 울산대 총장을 역임했다. 이 센터장이 정 명예회장의 인사 청탁을 거절한 일화는 유명하다. 그는 서울아산병원에 부임하던 해에 "의사 한 명을 전공의로 입사시켜 달라"는 정 명예회장의 부탁을 받았다. 하지만 고심 끝에 "전공의 입사는 대학 입학과 같다. 공정한 룰을 지켜야 한다"며 거절했다. 정 명예회장도 이 같은 뜻을 존중해줬고 이후 관련 청탁은 푹 끊겼다. 원칙을 중시하는 그의 이력 덕분에 지난해 10월 이 센터장의 취임은 의료계에서 화제가 됐다. 센터에 가져올 변화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2017. 2. 23, 한국경제 이지현/임락근 기자



싱가포르 도시재생 한국에 접목 국토부 도시재생과장 이홍수 씨...국민추천제



“해외에서 쌓은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제화에 걸맞은 도시재생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싱가포르 도시재개발국에서 상업중심지구 개발과 교통 인프라스트럭처 등 도시계획을 총괄한 이홍수 씨(41)가 12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과장으로 영입됐다고 인사혁신처는 이날 밝혔다. 이 신임 과장은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건축설계 석사 학위를 받고 하버드대학원에서 도시계획 석사과정을 거친 뒤, 싱가포르 도시재개발국 공무원으로 싱가포르 도시계획에 깊숙이 관여했다. 싱가포르 중심지역의 중기 도시계획과 30년 장기 도시계획을 수립한 인재라는 게 이 신임 과장을 임용한 인사혁신처의 설명이다.

이 신임 과장은 앞으로 대도시 경제거점 조성, 중규모 거점도시 활성화 및 근린생활 환경 개선 등 지역맞춤형도시재생모델 확산과 스마트도시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며 지속가능한 미래형 도시계획 시스템의 체계적 구축과 관련한 업무에서 활약하게 된다. 이 신임 과장은 “미래 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도시개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신임 과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재를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를 통해 채용됐다. 김정일 인사혁신처 인재정보기획관은 “국민추천제가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영입하는 한축으로서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통해 정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6. 6. 13. 매일경제 최희석 기자

글로벌인재 '15년 0 건 >>>> '17년 8월 2 건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장에 지연수 美퍼시픽아시아박물관큐레이터임용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24일자로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장에 지연수(48) 前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퍼시픽아시아박물관 큐레이터를 임명했다. 지연수 신임 전시홍보과장은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롱비치에서 미술사(학사), 아시아미술사(석사)를 전공했으며, 2011년부터 USC 퍼시픽아시아박물관 큐레이터로 활동해왔다.

특히, 민간스카우트로 진행됐으며 인사혁신처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발굴된 자원으로서 외국에서의 전시·홍보 경험을 바탕으로 국립고궁박물관의 위상 강화와 국내외 교류협력에 새로운 분위기를 불어 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고궁박물관은 ‘궁중유물의 조사·연구,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소장유물의과학적 보존·처리 및 수장고 관리’, ‘유물의 복제·복원·복사·모조 및 촬영’, ‘궁중유물 보존·관리에 관한 대외협력’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2017. 4. 21. EconomytalkNews 왕진오 기자

SKT출신 김명희 정부통합전산센터장 “조직과 구성원 역량 강화”

“민간기업에서 공직으로 옮겼다고 해서 다를 것은 없습니다. 일하는 방식과 시스템을 개선하고 구성원 역량을 향상시켜 정부통합전산센터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취임 3개월째에 접어든 김명희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은 “센터 발전방안과 세부계획을 수립해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면서 “정부 정부통신기술(CT) 인프라와 ICT 산업 발전 지원기관으로서 역량 강화에 주력 하겠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국장급)은 지난 2월 정부 민간 우수인재 헤드헌팅으로 임용된 첫 여성공무원이자 첫 여성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이다. 한국IBM과 SK텔레콤 출신으로 부임 때부터 주목받았다. 김 센터장은 “민간에서 하던 대로 기관장으로서 조직 목표를 달성하고 구성원을 성장시키는 방안을 고민해 실천 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임 직후 모든 직원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 직원 스스로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조직을 위해 어떤 기여를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포부를 가졌는지 정리하도록 했다. 이를 모아 두터운 자료집을 만들었다. 김 센터장은 “조직과 직원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면서 “공통된 내용을 모아 발전방안에 활용한다”고 말했다. 이미 센터 발전을 위한 5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동했다. 시각화 기법을 적용한 업무 중심 모니터링체계 전환, 서비스수준협약(SLA) 보완, 클라우드 표준 아키텍처 등에 관한 TF다...



방안을 고민해 실천 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임 직후 모든 직원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 직원 스스로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조직을 위해 어떤 기여를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포부를 가졌는지 정리하도록 했다. 이를 모아 두터운 자료집을 만들었다. 김 센터장은 “조직과 직원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면서 “공통된 내용을 모아 발전방안에 활용한다”고 말했다. 이미 센터 발전을 위한 5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동했다. 시각화 기법을 적용한 업무 중심 모니터링체계 전환, 서비스수준협약(SLA) 보완, 클라우드 표준 아키텍처 등에 관한 TF다...

2017. 4. 4. 전자신문 이호준 기자

여성인재 '15년 0 건 >>>> '17년 8월 3 건

“민간서 쌓은 DB분석 경험·전문성 통계청 서비스 개선 밑거름으로”



“데이터 분석과 마케팅 업무 등 그동안 민간기업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과장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일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과장으로 임용된 윤지숙(51·사진) 전 IBM 상무는 정부 헤드헌팅 ‘여성 3호 공무원’으로 발탁된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윤 과장은 데이터 분석, 컨설팅 분야 전문가로 서울대 통계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계산통계석사 학위를 받았다. 윤 과장은 SAS코리아·유니보스 등에서 일했으며 씨티은행에서는 합병은행의 데이터 통합을 성공리에 마무리한 경력이 있다. 또 IBM에서는 금융산업 전담자로서 회사 최초로 금융권 빅데이터 사업을 수주하는 성과를 냈다.

지난해부터는 ‘Big Data’ 대표를 맡는 등 20여 년간 데이터 분석, 마케팅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과장은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관련 서비스 운영을 책임지는 관리직이다. 인사혁신처는 민간 인재를 대상으로 지난 2015년 7월부터 헤드헌팅을 진행해왔다. 그동안 정부 헤드헌팅으로 총 21명의 민간 전문가가 각 부처 개방형직위로 임용됐다...

2017. 7. 17. 서울경제 권경원 기자



본인의 정보를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www.hrdb.go.kr)에 등록하시면

정부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발휘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인재정보기획관실

ADDRESS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6층

TEL 044-201-8058, 8059

FAX 044-201-8072

WEB www.hrdb.go.kr

E-MAIL hrdb@korea.kr